

도내 초·중·고생 미디어 리터러시 실태 분석 결과

윤리·책임·자기보호 역량 높아

교육 양상에서 초등 '미디어 역기능 예방'·중고교생 '윤리·책임 교육' 이 가장 많아 교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위한 시간 부족' 우선으로 꼽아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2022년 정책 연구과제 중 하나로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해 도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고 학교의 미디어 교육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또한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구 조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3,280명과 초·중·고 교사 1,1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학교급별 미디어 리터러시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영역별 양상을 조사한 결과 윤리 및 책임, 자기보호 역량, 미디어 접근 및 활용 역량,

내용의 이해 및 분석 역량, 평가 역량, 표현 및 생산 역량, 소통 및 참여 역량 순이었다.

학교에서의 미디어 관련 교육 양상을 조사한 결과 여러 미디어 관련 교육 중 초등학생은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대처 방법, 윤리 및 책임에 대한 교육 정보탐색 및 선택 방법 순으로 교육 경험이 많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윤리 및 책임에 대한 교육, 역기능 예방 및 대처 방법, 정보의 신뢰성 판별 방법 순으로 교육 경험이 많았다.

또 학교 미디어 교육 경험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 초·중·고 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경험 양상이 상이했다.

초등학생은 총 7가지 교육 영역 중 윤리 및 책임, 역기능 예방 및 대처 방법, 정보탐색 및 선택 방법 등 5가지 영역 중학생은 윤리 및 책임, 역기능 예방 및 대처 방법, 자료 제작 방법 등 4가지 영역, 고등학생은 윤리 및 책임 역기능 예방 및 대처 방법 등 2가지 영역이 유의미하게 학생 미디어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교육 경험이 많은 학생이 유의미하게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실제 효과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미디어 교육 양상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응답과 비슷하게 학교에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대처 방법,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검색과 선택 방법 등을 많이 교육한다고 답했다.

교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하기 위한 시간의 부족과 관련 지식 및 경험 부족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미디어 교육에 필요한 수업 자료(교재)와 콘텐츠의 부족, 고등학교에서는 물리적 교실 환경 조성의 미흡이 주요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학교 환경 구축, 수업자료(교재) 개발과 보급, 미디어 교육 및 자료 제작 방법 등에 대한 교사 연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한편,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포함한 전북 미래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선임조리사들이 지난 26일 진안고원 치유의 숲에서 '2022 내맘·내맘 다스림' 조리사 직무연수에 참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맘·내맘 다스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선임조리사들 진안고원 치유의숲에서 직무연수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6일 진안고원 치유의 숲에서 '2022 내맘·내맘 다스림' 조리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는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선임조리사 30명이 참여했다.

직무연수는 △조백한 진안의료원 일장의 고품질생식 △몸과 마음이 휴식이 되는 '심신치유&힐링생식'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한 밥상 △숯해설사의 '숯체험, 마음열기' △성철과 힐링을 위한 '나만의 정원, 원예테라피'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 치유를 위해 연수를 준비했다"면서 "성찰과 힐링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세계 최고 대학 연구소에 학생 파견

전북대,獨 프라운호퍼연구소 등에 6주간 학생 15명, 방학 중에 연구 프로젝트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이번 겨울방학 중 세계 최고의 대학 연구소에 학생들을 파견, 글로벌 역량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해외에서 최첨단 연구경험을 쌓고, 국제적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KIT)'와 '드레스덴 공대 IIT 연구소' 등에 관련 분야 미래 동량이 될 학생들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파견되는 학생은 프라운호퍼연구소(KIT)에 반도체과학기술학과 5명, 물리학과 2명, 전자공학부 3명, 그리고 드레스덴 공대 IIT 연구소에 고분자재료공학부 3명, 화학공학부 2명 등 모두 15명이다.

이들은 2023년 1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 6주 동안 세계적 연구소에 머물며 해외대학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과제 수행과 캡스톤디자인 활동에도 참여한다. 또한 그린수소와 수소탱크 관련 연구 프로젝트와 고성능 경량 구성요소 설계 및 최적화 실습 등을 현지 연구원들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해외 연구소 파견을 위해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이번 겨울방학 중 세계 최고의 대학 연구소에 학생들을 파견, 글로벌 역량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전경.

전북대는 관련 분야 학과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학생과 이들을 도울 책임교수 1명씩을 선발했다. 파견 학생에게는 항공료와 현지 기숙사비, 연구소 교육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인문석 국제협력처장은 "학부생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최첨단 연구 경험을 쌓고, 국제적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연구 분야 미래 동량이 될 학생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소에서의 값진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에이파워 감전예방 방호관 메이커스타 장려상 수상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에이파워 주식회사(대표 김효열)가 지난 24일 2022년 대한민국 메이커스타에 참가,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357팀이 지원, 시제품 제작 결과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전문가 평가위원 심사와 메이커데이와 연계한 대국민 평가심사로 진행됐다.

특히 해당 기관과 대국민 평가에서 시제품 제작과 작동의 완성도와 효과 및 효율성 그리고 사업화 가능성과 잠재력, 발전 의지를 토대로 한 확장성 등이 이 상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에이파워(주)에서 개발한 '감전 예방 건축용 방호관'은 건설 현장이나 감전 및 살피고장 예방이 필요한 곳에 스마트스타로 전선이 체결하는 방호관이다. 간접활선 방식으로 간간 체결이 가능해 작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절연 난연성 소재로 화재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품이다.

김효열 대표는 "감전 예방 건축용 방호관이 감전 사고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기업의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추구에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전기안전 문화 선두 기업으로써, 안전한 배전기 자체 개발과 제조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불어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기회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이해관계자 모두 행복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이상우 센터장은 "메이커데이 수상을 축하드리고, 이번 수상을 시발점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합격률 높인다

29~30일·내달 5일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면접특강 전문지식 등 직무수행 평정요소 관련 맞춤형 교육 제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월 29~30일, 12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2022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면접시험 대응력을 키워 최종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7개 직렬 10개교 24명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개별면접과제 작성지도 및 계열별 모의면접 평가 후 개인별 맞춤 피드백, 면접 실시 전 최종 리허설 등으로 진행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강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 평정요소에 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최종합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이강 과장은 "필기시험 합격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면접특강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고, 나아가 최종합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도내에서는 2020년 8개교 13명, 2021년 9개교 16명이 최종 합격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전주 15개 인문계고 연합 체육대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28~29일 양일간 전주 관내 15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4000여 명이 참가하는 '전주비전대학교 총장배 고교연합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체육대회는 그동안 수능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고3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내고 코로나19로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자'

전주대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불모지장과 집담회 모니터링지표 개발·도내 축제 현장 모니터링 결과 공유

전주대학교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최근 동군군 1층 뿌리라운지에서 불모지장과 함께 '쓰레기 없는 축제 만들기' 집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담회는 불모지장팀이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의제 공모에 제안한 '쓰레기 없는 축제 확산 프로젝트' 의제 실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배주현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 자원순환팀장, 정은실 불모지장 기획자,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 한동승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장,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전북시민공동행동, 빈방민들, 그린패치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 30여 명이 참여, 2시간 진행했던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지표 개발과 전북도 축제 현장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1부 발제에서 불방이 빈방민들 활동가와 소해진(달방)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쓰레기 없는 축제 모니터링지 개발과 실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과정과 그에 따른 보완점과 의의를 전달했다. 정은실(시리) 불모지장 기획자는 축제 참여 주체별, 운영 단계별로 구분해 쓰레기 없는 축제를



함께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배주현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 팀장은 쓰레기 없는 축제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발제자 4명과 청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서 발표한 4개의 주제에 대해 다각적인 종합토론을 하고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동승 집행위원장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지역 내 쓰레기 없는 축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자발적 시민 참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민·관·공이 함께 협력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2022 메이커데이 장려상 ₩3,000,000